



# 러시아 Russia



## I. 투자환경위험 평가결과

### 투자환경위험수준



보통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적인 대외부채비율 등은 긍정적이거나, 세계경기 침체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 및 재정수지 적자가 전망되며,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지속으로 어려운 대외경제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투자환경위험 수준은 '보통'으로 평가

### 평가분야



### 평점기준



### 평가결과

#### 분야별 위험수준

투자동향(10%)		국가위험도(40%)		투자여건(50%)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주의	주의	주의	양호	양호	보통

#### 종합 위험수준

보통	보통	보통
2018년	2019년	2020년



## II. 주요 시장 동향·제도 변화

<p>정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월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개헌안이 77.92%의 지지율로 통과되어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으며 2036년까지 집권 가능성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헌에 반대하는 시위가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서 개최되어 수백 명이 체포된 바 있으며 하바롭스크 주지사 구속과 관련된 시위도 몇 달 동안 지속되는 등 푸틴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 확산 추세</li> </ul> </li> <li>또한 주요 반정부 인사인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으로 미국, 유럽 등과의 관계 악화 지속</li> </ul>
<p>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MF의 6월 자료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6.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러시아 경제부는 -3.9%로 전망을 상향 조정. 전문가들은 이른 봉쇄조치 해제 등으로 러시아 경제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것으로 평가</li> <li>GDP 대비 총외채잔액,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 등 외채상환능력 지표들은 비교적 안정적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지속은 경제의 부정적 요소</li> </ul>
<p>1. 투자정책 (산업관리/법률·규제)</p>	<p><b>유지</b></p> <p>정부는 제조업 발전을 위해 특별투자계약(Special Investment Contract) 관련법 개정을 통해 외국자본 유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의 최소 투자액(7억 5천만 루블(약 130억 원)) 폐지, 지원 기간 연장(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500억 루블(약 9천억 원) 이상의 투자일 경우 최대 20년까지), 투자자는 향후 투자 관련법의 변동시에도 기존의 법 테두리에서 보호 등 내용</li> <li>투자자는 연방 및 지방정부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의 지원(산업개발 펀드를 통한 금융 지원, 법인세 면제 등)을 받아 제조업 부문에 투자. 또한, 특별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공공 조달 사업자 선정 시 우선권을 인정받게 되는 '단일공급자(Sole Supplier)' 지위 취득</li> </ul> <p><b>외국인투자자의 러시아 전략기업 주식(지분) 거래에 대해 통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 7월 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의결권 있는 전략기업의 주식(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정부 당국의 사전동의 취득 필요</li> </ul>
<p>2. 외환제도 (외환통제/해외송금/환율동향)</p>	<p><b>유지</b></p> <p><b>환율 상승 후 보험세 지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루블화 환율은 연초에 1달러당 61루블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3월 말 1달러당 80.9루블까지 상승하였으며, 9월 초 1달러당 75루블에서 보험세 형성</li> </ul> <p><b>외환규제법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거주자와 체결한 대외무역 계약에 따른 외환거래 금액이 1억 루블(약 130만 달러)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은행 계좌로의 송금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li> </ul>
<p>3. 조세제도(법인세)</p>	<p><b>유지</b></p> <p>법인세율은 20%이며 이 가운데 3%는 연방 재정으로, 17%는 지방정부 재정으로 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소득세는 13% 단일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율은 20%(기본식료품, 의약은 10%)</li> </ul> <p><b>IT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년부터 법인세율은 20%에서 3%, 공적보험료율은 14%에서 7.6%로 인하</li> </ul>



#### 4. 금융제도 (현지조달/자본시장)

##### 유지

##### 중앙은행은 2020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네 차례 인하

- 연초의 기준금리 6.25%에서 9월 현재 4.25%로 하향 조정

#####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한도 설정

- 중앙은행이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대출은 원리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며, 개인은 25만 루블(약 2,600달러), 개인사업자 30만 루블(약 4천 달러), 자동차 대출 60만 루블(약 8천 달러), 주택담보대출 150만 루블(약 2만 달러) 이내의 범위로 설정

#### 5. 노동제도 (근로조건/고용해고/노사관리)

##### 유지

##### 40세 이상 직장인에 대한 연 1회 건강검진을 위한 유급휴무일 제도 도입

- 기업 규정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건강검진확인서를 회사에 제출 필요

##### 법인 청산시에 직원에 대한 보상 규정 정비

- 법인 청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근로자에게는 2개월분을 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미취업 확인시 추가 1개월 분 급여 지급. 또한 법인 청산 절차 완료 이전에 보상금 지급

##### 외국인 국적 취득 간소화

- 러시아 국적 신청인에 대한 기존 국적 포기 의무가 폐지되었으며, 러시아 학위증 보유자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을 위한 러시아 내 의무 노동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최저임금은 월 약 173달러이며 러시아 전체 평균임금은 월 약 680달러 수준

- 지역별로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약 1,000달러 전후로 가장 높은 수준

#### 6. 무역제도 (관세수준/무역제한)

##### 유지

#####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제재로 인한 서방 및 우크라이나와의 교역 제한 지속

- 2014년 이후 러시아의 기업인들과 에너지, 군수, 금융 등 부문 기업들에 대한 EU와 미국의 대러 제재가 2020년 9월 현재까지 지속 및 확대 시행

##### 온라인 수출 서비스 및 절차 목록 승인

- 러시아 수출센터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 가능한 교역 관련 서비스 및 절차 목록 승인. 의료용 의약품 관련 수출입 허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타 일부 품목의 수출입 허가 등이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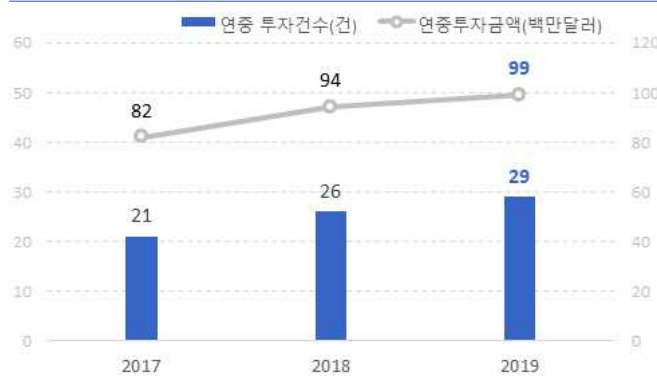
(붙임) 평가 분야별 세부내용



I. 외국인투자 동향

1. 직접투자 실적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실적



투자누계

연중 투자건수 누계

615건



연중 투자총액 누계

2,815백만 달러



주) 2017~19년은 해당연도 실적, 투자누계는 2020년 3월말 기준 전체 누계 실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실적

대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실적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II. 국가위험도 평가

1. 국가신용등급

구분	2018	2019	2020.8
한국수출입은행	C1	C1	C1
OECD	4	4	4
Moody's	Ba1	Baa3	Baa3
Fitch	BBB-	BBB	BBB



### Ⅲ. 투자여건 평가

#### 1. 기업경영여건

구분	순위	
	2018	2019
1 창업(Starting a Business)	32/190	40/191
2 건축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48/190	26/191
3 전력수급(Getting Electricity)	12/190	7/191
4 재산등록(Registering Property)	12/190	12/191
5 신용획득(Getting Credit)	22/190	25/191
6 소액투자자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57/190	72/191
7 조세납부(Paying Taxes)	53/190	58/191
8 대외무역(Trading Across Borders)	99/190	99/191
9 계약실행(Enforcing Contracts)	18/190	21/191
10 사업청산(Resolving Insolvency)	55/190	57/191
종합순위	<b>31/190</b>	<b>28/191</b>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 2. 글로벌경쟁력지수

구분	순위	
	2018	2019
1 제도(Institutions)	72/140	74/141
2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51/140	50/141
3 ICT 도입(ICT adoption)	25/140	22/141
4 거시경제 안정성(Macroeconomic Stability)	55/140	43/141
5 보건(Health)	100/140	97/141
6 기술(Skills)	50/140	54/141
7 상품시장(Product Market)	83/140	87/141
8 노동시장(Labour Market)	67/140	62/141
9 금융제도(Financial System)	86/140	95/141
10 시장규모(Market Size)	6/140	6/141
11 기업 역동성(Business Dynamism)	51/140	53/141
12 혁신 역량(Innovation Capability)	36/140	32/141
종합순위	<b>43/140</b>	<b>43/141</b>

자료)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